

류승룡·염정아, 유쾌한 웃음과 감동 ‘인생은 아름다워’

추억의 명곡들 담은 뮤지컬 영화

“첫사랑·가족·인생과 함께 추억을”

배우 류승룡과 염정아가 다음 달 개봉하는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추억과 함께 웃음과 감동을 예고했다.

류승룡은 1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인생은 아름다워’ 제작보고회에서 “전 세대의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작품”이라며 “남녀노소 많은 분이 보시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자신의 마지막 생일선물로 첫사랑을 찾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아내 ‘오세연’(염정아)과 마지막 그녀와 함께 전국 곳곳을 누비며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 남편 ‘강진봉’(류승룡)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관통하는 세대 공감 대중음악으로 구성된 유쾌한 뮤지컬 영화다. 신준현의 ‘미인’, 이문세의 ‘조조할인’, ‘알 수 없는 인생’, ‘솔로예찬’, ‘애수’, 이승철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유열의 ‘이별이래’, 토이의 ‘뜨거운 안녕’까지 다양한 음악들로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의 탄생을 예고했다.

영화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명곡들을 통해 인생 이야기를 전한다. 첫사랑부터 우정, 가족애까지 인생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았다.

배우들은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속 명곡을 쏘으며 노래를 한 소절씩 직접 부르기도 했다. 특히 류승룡은 유쾌한 모습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류승룡은 “대사를 효율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뮤지컬”이라며 “감정과 대사, 상황을 잘 전달하려고 주력했다”고 말했다.

류승룡은 같은 생활에 찌들고 투덜거리지만 속은 따뜻하고 귀여운 인물인 ‘진봉’ 역을 맡아 친근한 매력을 선보인다. 지난해 초 개봉해 전국민적 사랑을 받은 영화 ‘극한직업’ 이후 2년여만의 스크린 복귀다.

그는 “영화는 가족과 인생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며 추억에 젖게 하고 공감을 끌어낸다”며 “그 안에 소소한 웃음과 진한 감동이 있다. 저도 대본을 보면서 울고 웃었다”고 말했다.

극 중 부부 호흡을 맞춘 염정아에 대해서는 “세연” 그 자체였다. 현실의 제 아내와도 비슷하다고 웃으며 “고마웠던 건 본인 촬영을 끝내고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제 앞에서 감정을 잘 잡아줬다. 너무 좋은 배우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뮤지컬 영화를 꼭 하고 싶었다는 염정아는 “제안을 받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염정아는 “오래 꿈꿔왔는데 제대로 만났다. 뮤지컬을 하고 싶다고 떠들고 다닌 보람이 있었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좌절도 많이 했다”며 “군무를 틀리지 않고 해냈을 때는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완벽한 타인’을 배세영 작가와 함께해서 글을 얼마나 섬세하게 쓰고 공감을 잘 끌어내는지 알고 있었다”며 “시나리오를 보고 울었다. 무조건 이젠 제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수백 번을 연습했는데도 춤추고 노래를 하다 보면 가사를 자주 틀렸다. 조금만 짚었더라면 체력이 더 좋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며 “촬영하는 시간 외에는 연습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염정아의 고등학생 시절인 ‘어린 세연’ 역은 박세완이 맡았다. 박세완은 방송반에서 본 선배 ‘정우’에게 첫눈에 반해 첫사랑을 시작하는 풋풋한 감정을 담았다.

특히 극 중 염정아와 비슷한 외모와 분위기를 풍겨 눈길을 끌었다.

박세완은 “좋아하는 선배님과 같이하는 것도 영광인데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좋았다”며 “평소 선배님의 미소나 특유의 느낌을 기억하고 찾아봤다. 첫사랑의 감정에 집중하려고 제 경험을 넣어서 살리는 눈빛이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꼬리 등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윤성우는 어린 세연의 첫사랑 ‘정우’ 역을 연기했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다.

윤성우는 “너무 떨린다.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라며 “춤과 노래가 있는 뮤지컬 장르에 도전하는 건 새롭고 즐거웠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한 스크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설레고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또 “상대 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게 재미있었고 이걸 위해 춤과 노래를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영화를 보고 아름다운 인생을 추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국가부도의 날’을 연출한 최국희 감독의 신작이다. 최 감독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제 어머니, 아내가 떠올랐고 그 감정에 공감이 됐다”며 “평평 울었고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美 블룸버그 ‘팝스타 파워랭킹’ 1위...“아시아 처음”

스모크·카디 비·저스틴 비버 등 경쟁한 팝스타들 제쳐



그들 ‘블랙핑크’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1위로 선정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달 발매한 정규 1집 ‘디 앨범’의 성공에 힘입어 이달 팝스타 파워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K팝을 비롯 아시아 가수가 해당 랭킹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핑크는 이번에 팝 스톱(2위), 카디 비(3위), 저스틴 비버(4위) 등 경쟁한 팝스타들을 제쳤다.

블랙핑크의 이달 부문별 순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유튜브 1위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난 6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공개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 이어 세계 아티스트 중 두 번째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2위, 앨범 판매 9위 등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매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25인을 선정하는 6가지 기준을 공개해 공정성을 알렸다. 라이브 쇼의 3개월 총 수익률, ‘라이브 쇼의 30일 티켓 판매량’, ‘4주 앨범 판매량’, ‘4주간의 디지털 송 스트리밍 조회수’, ‘인스타그램에서 30일 간의 활동’, ‘4주

유튜브 조회수’ 등 폴스타, 스포티파이, 닐슨 뮤직/MRC, 크라우드펄 및 유튜브 등 여러 데이터를 참고해 선정된다.

블룸버그는 블랙핑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팝밴드”라며 “음악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파동을 일으켰다”고 극찬했다.

이어 “블랙핑크는 지난 10월 유튜브 조회수 10억뷰를 달성하며 독보적인 유튜브 내 기록을 이어갔으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례없는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 앨범’이 미국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톱 10인 점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 멤버들이 영어, 태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언급하며 이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비결중 하나로 전했다. 더불어 블랙핑크의 성공이 과거 엔싱크와 백스트리트 보이스를 연상시킨다며 “K팝이 완벽한 주류 문화가 됐다”고 보도했다.

블랙핑크는 ‘디 앨범’으로 각종 기록을 썼다.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모두 2위에 등극,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자체 경신했다.

또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서 3위,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수록곡 ‘아이스 크림(Ice Cream)’은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13주까지 오르내리며 8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위아이’ 김요한, ‘학교 2021’ 주연

내년 8월 방영 목표 제작준비

그룹 ‘위아이’ 김요한이 ‘학교 2021’에 합류한다.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는 김요한이 내년 8월 방영될 KBS 2TV 새 드라마 ‘학교 2021’에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2021’은 KBS 청소년 드라마 시리즈물로 1999년 ‘학교 1’을 시작으로 2017년 ‘학교 2017’까지 총 7편 제작을 이어왔다. 그동안 장학, 조인성, 공유, 김우민, 남주혁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을 대거 배출하며 ‘스타등용문’ 자리를 굳건히 해왔다.

솔로 활동은 물론 최근 ‘위아이’ 첫 번째 미니앨범 ‘IDENTITY : First Sight’ 활동을 통해 끼와 에너지, 다양한 매력을 발산해온 김요한의 새로운 변신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학교 2021’은 내년 8월 방송을 목표로



제작 준비 중이다.

‘에이핑크’ 윤보미 “가장 편하게 촬영한 작품”

“멤버들 응원 감사”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가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에 대해 “가장 편하게 촬영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멤버들의 응원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전했다.

윤보미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에브리원 화요일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는 ‘만나선 안 될 남자’를 가려낼 AI 방장고를 갖게 된 여자들의 절대 공감 스타일 만점 러브 코미디 예능 드라마로 송하윤, ‘유키스’ 이준영, 공민정, ‘에이핑크’ 윤보미 등이 출연한다.

윤보미는 펠리컨 방역 직원인 ‘금사빠’ 문예슬로 분한다. 펠리컨 전자 보안팀의 IT디자이너였지만 ‘쓰레기’ 남친들에게 보충과 대출을 베풀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펠리컨 방역으로 발령 받았다.

그는 “대본이 너무 재미있고 신선했다”며 “‘예슬’이라는 캐릭터가 저와 너무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르기도 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촬영이 ‘편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편하게 촬영한 작품이다. 친구들이 각자 연애 스토리를 공유하고, 실제 이런 AI 방장고도 존재하면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윤보미는 “멤버들이 첫 촬영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모두 연락해서 응원해줬다”며 “초통 언니는 같이 숙소에서 사는데 새벽에 책상 위에 초콜릿과 응원 메시지를 깜짝 선물로 두고 가서 감동 받았다”고 자랑했다.

한편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는 이날 오후 10시40분 MBC에브리원, 16일 오후 10시40분 MBC에서 첫 방송된다.

뉴시스

박하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영상 내레이션 재능 기부

22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헌신 기리는 4분짜리 영상

배우 박하선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아 재능기부를 했다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1일 밝혔다.

22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4분짜리 영상으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세계 유일의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인 ‘틴 투워드 부산’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감사광고 등을 소개한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갖고 산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널리 전파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에 살아 있는 참전용사들이 매년 11월11일 11시에 1분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틴 투워드 부산’ 행사를 네티즌들에게 널리 소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하선은 “이런 의미있는 영상의 내레이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며, 많은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수는 지난 10일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및 방콕 시내 중심가 등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 참전용사 감사광고를 시작했으며, CNN 및 BBC 등 세계적인 방송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집행할 계획이다.